



2025년 3월 30일(제1240호) 시순 제4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찾아가 유산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아들입니다. 아마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저도 하느님께 배은망덕한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아버지께 그렇게 ‘주십시오’ 하는 제 모습 또한 부모에게 한탕 챙기고 떠나려는 탕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좋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란 어떤 아들일까요. 나쁜 자녀가 부모를 통해 나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이라면, 반대로 좋은 자녀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녀가 아닐까요.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령, 부부의 연을 맺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하느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마침 복음이 하느님께서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몸 둘 바를 몰라 하십니다. ‘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죄에서 돌아서, 하느님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려 걸어가는 것, 독서 말씀대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지난날 하느님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욕심에 기울었던 잘못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가서 말합니다. 하느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뭉클한 듯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서 잔칫상을 준비해라. 내가 오늘 잃었던 아들을 찾았구나!’

예로니모 성인에 관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성정이 불같았던 예로니모가 하느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드리는 사순 시기가 됩시다.



장준교(로마노) 신부  
예성대(공군 제16전투비행단) 상영 주임

- 제 1 독 시      여호 5,9ㄱ-10-12
-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제 2 독 시      2코린 5,17-21
-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 복            음      루카 15,1-3.11ㄴ-32
- 영    성    제    송      아들이야,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거듭거듭 부탁하고 손을 놓고 돌아서니,  
네 사람만 남아 서로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던 차,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유문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사람의 정으로 볼 때 그 비참함은 오히려 둘째 문제이고,  
요한(유문석)이 복을 받음은 기쁘고 또 기쁜 일이다!

오! 애통하구나! 요안(유중철)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억만 개의 칼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하여 이 몸이 갈피를 못 잡겠구나!

반나절이 지난 후에 이것도 또한 은총인지 마음이 맑아지면서,  
「이 세상에서 쌓은 공덕이 전혀 없지 않으니 설마 아주 버리시랴!」 하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졌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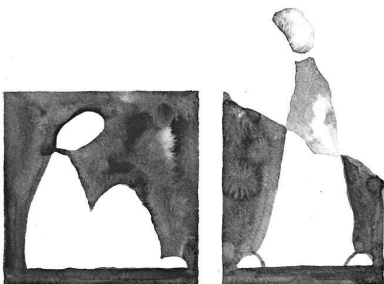
오라버님(유중철, 요안) 생각에 마음이 애뜻하여 걱정이더니, 당숙께 물으니  
당숙께서는 오히려 요안 오라버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셨다」 라고 하시더라.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상지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생각할 시간



직진만 하며 살았다.  
그게 맞다고.  
그래야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직진만 하며 살았다.  
  
U턴 신호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이란 걸 해 본다.

왜. 이렇게 직진만 하며  
살아왔는지.  
어디를 가는지.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다.  
제대로 가기 위해.  
제대로 살기 위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탕아의 귀환



무리요(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  
 167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framed: 262.9x286.4x8.6cm  
 (103 1/2 x 112 3/4 x 3 3/8 in.)  
 런던 나셔널 갤러리, 영국

본 작품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그가 이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없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이들의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추었다.”

(루카 15,20)

헤어질 대로 헤어져, 더 이상 헤어질 곳도 없는 상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보인다. 아들의 다리 쪽에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강아지가 보이는데, 아들의 피부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 또한 그의 발바닥은 까맣게 때가 탔으며, 손질도 못 한 머리는 어깨에 닿을 지경이다.

아버지 품에 안겨 두 손을 꼭 잡은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는 두툼하고 묵직해 보이는 적색의 겹옷과 청색의 의복을 입고 있다. 아버지 옆에는, 아마도 아들이 입을 옷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의 금장식이 가미된 의복과 샌들, 그리고 금반지까지 들고 있는 두 젊은이가 보이고, 그 주위로도 여인과 아이 등의 인물이 있다. 왼쪽에는 아마도 아들을 위해 도축하고 요리해 줄 소가 한 마리 보이며, 이를 어린 소년이 끌고 오고 있다.

아버지 품에 온전히 안긴 아들과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길, 비록 아들을 향한 직접적인 시선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작은 세계 속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등장인물들의 상호작용이 다정다감하고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시순 제4주일: 삼위일체 최권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2025 제1회 군중교구 청년대회

때·곳: 4월 1일(화)~3일(목),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산양 회백과 상장을 위한 긴진상사의 해” - “상량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